



한국인 가미카제 위령비 논란



日여배우 구로다, 사천에 건립... 광복회 반대로 철거

일본의 유명 여배우이자 대표적인 친한파로 알려진 구로다 후쿠미(사진·52)가 28일 서울신문사를 찾았다. 구로다는 기자의 인터뷰에서 경남 사천에 세워졌던 일본 자살특공대 가미카제 대원인 한국인 탁경현의 위령비에 대한 소의를 털어냈다.

●구로다 '강제 징집된 탁경현 영혼 위로'

구로다는 탁경현의 고향인 사천에 위령탑 건립을 추진해왔다. 17년전 어느날 "나는 조선인으로 태평양 전쟁에서 일본 이름을 달고 죽었다."면서 원한을 풀어달라는 젊은이의 꿈을 공개 계기였다. 구로다는 가미카제 관련 자료를 뒤졌고 사천시에서 태어난 25살 청년이 자살특공대로 투입돼 오키나와 앞바다에서 사망한 사실을 확인했다.

특이한 끝에 위령비를 건립해 주겠다고 결심한 구로다는 지난해 사천시에 이같은 의사를 전달



했다. 사천시도 흔쾌히 건립 부지를 내줬고 지난 10일 위령비 제막식이 열릴 예정이었다. 하지만 광복회와 사천 시민단체들이 "탁경현은 일본을 위해 목숨을 버린 반민족 행위를 한 사람"이라고 반대하고 나섰다. 그래서 제막식은 열리지 못했고 위령비는 지난 18일 철거됐다. 구로다는 "광복회 등의 의견도 충분히 존중한다."면서 "다만 부지까지 내준 사천시가 임의대로 비석을 철거한 것은 서운하다."고 말했다.

●광복회 "日 일등공신 추앙...자원 불원없이"

탁경현의 위령비를 둘러싼 논란의 핵심은 그의 자격 시비다. 구로다는 "탁경현의 유족에 따르면 한국에 있는 가족이 안전하게 살 수 있도록 징집 전에 스스로 일본에 갔고 그의 영혼은

불쌍하게 일본인 이름으로 떠다니고 있다."고 설명했다. 광복회는 "가미카제는 일본이 일등공신으로 받드는 만큼 아무나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면서 탁경현의 자원입대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사천시는 "일본정부의 자료에 따르면 탁경현은 9살 때 건너가 의료전문대학을 나오고 곧바로 군대에 자원했지만 당시 상황상 순수한 자원입대로 보기는 힘들다."고 모호하게 설명하고 있다.

사천시는 구로다의 좋은 뜻은 인정하지만 비석을 다시 세우기는 힘들다는 입장이다. 사천시 관계자는 "다만 비석에서 탁경현이라는 이름을 없앤다면 다시 공론화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구로다는 "이미 비석을 세우기 전에 제안한 바 있고 오히려 시측에서 이름을 빼면 의미가 없다고 했었다."고 전했다. 그는 일본에 강제로 징집되어 죽은 한국인의 영혼을 위로하려는 진심이었으므로 합의점을 찾고 싶다고 말했다.

이경주기자 kdrlucw@seoul.co.kr

대표전화 02)6900-9000

www.segyetour.com

제21453호 대표전화 02)2000-9000

서울신문 2008년 5월 29일 목요일